

# 라후어(Lahu)의 언어학적 연구\*

- 음성학 및 음운론적 분석 -

이 현 복\*\* · 성 백 인\*\*\*

## I. 머리말

태국 북부와 미얀마의 북동부 그리고 라오스의 서북부 및 중국 운남성의 남부 지역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황금의 삼각지대 (Golden Triangle)” 주변에 흩어져 사는 산족중에 “라후(Lahu)” 족이 있다. 이들이 쓰는 언어 역시 “라후어(Lahu)” 라고 한다. 이들은 농경과 아편 재배로 근근히 살아가는 국적이 없는 산족이다. 라후족은 언어, 풍속, 생활 양식 등에서 인근의 태국인이나 라오스인, 미얀마인, 중국인 등과는 전혀 다른 고유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 라후족에 관한 지식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등의 동남아시아의 언어와 역사 및 민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라후 족을 비롯한 황금의 삼각지대에 흩어

---

\* 이 논문은 1994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지역연구)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서울대 인문대 언어학과 교수

\*\*\* 서울대 인문대 언어학과 교수

저 사는 산족에 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동남아시아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라후어는 커다란 중요성을 지닌다.

라후족의 언어는 특히 한국인에게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것은 라후어가 음성적, 문법적인 구조와 특성에 있어서 한국어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라후어는 음성과 음운의 체계가 한국어와 유사할 뿐 아니라 문장 안의 어순도 같고 그 밖에도 형태론 및 통사론적 특성에 있어서 우리말과 유사한 면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언어학적으로 라후어는 “싸이노-티베트(Sino-Tibetan)”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싸이노-티베트”라는 거대한 어족의 한 분파인 “티베트-버마(Tibeto-Burman)” 계로 이어지며, 라후어는 바로 티베트-버마 계열의 한 분파인 “롤로-버마(Lolo-Burmese)” 분파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한국어는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그렇다면 어족적으로 전혀 계통을 달리하는 라후어가 어찌하여 한국어와 유사성을 지니는지 큰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라후어는 과연 한국어와 계통이 같은 언어인가? 아니면 단지 유형적으로 유사성을 지니는 것인가? 아니면 역사적으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우리말과 유사한 면을 지니게 된 것인가?

이러한 의문을 풀기 위하여는 먼저 라후어 자체에 관한 언어학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라후어에 대한 정밀한 연구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와 구조적 특성을 비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목표 아래 필자는 라후어에 관한 언어학적 분석과 기술을 시도한 것이다. 물론 라후어를 언어학적으로 조사 분석하기 위해서는 깊은 산속, 라후족의 마을을 탐방하여 라후족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고 언어 분석을 시도해야 한다.

한 언어의 연구는 음성학,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등 여러 분야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술을 바탕으로 해야만 그 언어의 전모를 밝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우선 라후어의 음성학 및 음운론적 분석을 목표로 한다. 라후어는 글자가 없는 말이므

로 라후인을 대상으로 하여 말소리를 조사, 분석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작업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같은 말소리의 음성학 및 음운론적 기술을 토대로 하여 형태와 통사 및 의미에 관한 연구를 순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 II. 라후족과 라후어의 현황과 연구 범위 및 방법

라후족과 라후어는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의 산족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라후족과 라후어의 현황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 1. 라후족과 라후어의 분포

라후어는 Lahu Na(Black Lahu)와 Lahu Shi(Yellow Lahu), Lahu Ni(Red Lahu Si), Lahu Shehleh로 나뉘어 방언적인 차이를 보이는데, 이 중에서 Lahu Na가 대표적인 표준말 또는 공통어로 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도 Lahu Na를 기술의 대상으로 삼는다. 라후족은 60여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에서 중국에 36만, 미얀마에 20만, 태국에 6만, 라오스에 2천명 정도가 살고 있다. 라후족은 오래 전부터 중국과 미얀마에 정착하였고 태국과 라오스에 있는 라후족은 백여년전부터 이주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라후족은 태국, 버마, 라오스, 월남, 중국 등지의 고산지대에 흩어져서 살고 있고 국적도 없이 원시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김치를 담궈 먹으며 민속과 놀이 문화가 우리와 유사한 것이 많다.

## 2. 문자가 없는 라후어

라후어는 대대로 음성언어의 형태로 존재해 왔을 뿐, 고유의 문자가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언어나 역사 등에 관한 문자 기록이 전무한 것이다. 따라서 라후족의 언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산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 라후족의 말을 직접 접하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근래에 선교사들이 로마자를 이용한 표기법을 만들어 사용하며, 이를 이용하여 성경을 펴낸 바도 있다. 그러나 특별히 교육을 받았거나 기독교 신자가 되어 로마자 정서법을 익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글자가 없이 소리 말만 쓰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 3. 연구 범위

이 논문은 현지 조사를 통하여 라후어의 음성학 및 음운론적 분석 기술을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누어 추진하였다.

- (1) 기초 어휘 조사: 약 1,000 개의 기초 어휘(신체, 가족, 친척, 자연, 의식주, 동식물 등)와 기본 문장을 조사한다. 이 같은 기초 어휘 조사는 부분적으로 음성학 및 음운론적 분석에 직접 활용되는 자료이다. 기초 어휘조사표 연구자가 직접 작성하였다.
- (2) 음성학 및 음운론적 분석: 라후어의 음성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발음의 특성을 기술한다. 그리고 음성학적 기술 결과를 바탕으로 라후어의 음운론적 분석을 시도하여 음소의 목록과 음소결합의 특성 및 음운 과정, 등을 기술한다.

## 4. 연구 방법

라후족은 해발 1,200m 이상의 태국 북부 고산지대에서 거주하므로 라후

어를 채취하고 조사하기 위해서는 고산지대의 라후 부락에 들어가서 라후인을 상대로 직접 면담하여 언어자료를 녹음 채취하는 현지 조사와 현지 조사 결과를 분석, 기술하는 분석 단계로 나뉜다. 조사방법은 사전에 작성된 “언어조사표”를 토대로 수집된 어휘를 이용하여 음성학 및 음운론적 분석을 하였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 연구를 위하여 언어자료 제보자로 참여한 라후인은 남녀와 노소를 합하여 12명에 달한다.

### Ⅲ. 라후어의 음성과 음운

#### 1. 라후어의 음절 구조

라후어의 음성과 음운 구조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기술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단위는 음절이다. 라후어의 음절 구조는 대단히 단순하여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음절 → (C) + V + T = < 자음 + 모음 + 성조 >

위에서 (C)는 초성의 자음이 수의적임을 나타내고 V는 음절의 핵을 이루는 모음을 나타내며 T는 성조를 나타낸다. 따라서 모음과 성조는 음절의 필수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위의 공식에서 알 수 있듯이 라후어는 자음군이 없다. 음절의 핵인 V 위치에는 단순모음이나 이중모음이 나타나며 T의 위치에 나타날 수 있는 성조는 모두 7개이다.

#### 2. 라후어의 자음 음소 목록

라후어의 자음 음소 목록은 다음과 같이 24개의 자음으로 구성된다.

24개의 자음을 조음 위치 및 조음 방법으로 배열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 제시한 24 자음은 모두 음절의 첫소리로 날 수 있다.

24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진 라후어의 음소 체계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파열음과 파찰음의 조음 위치가 다섯 군데에 걸쳐 있다는 사실이다. 즉 일반적으로 여러 언어에서 쓰이는 양순, 치조, 경구개, 연구개의 4개 위치 이외에 목젓 위치가 추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성음과 비음의 경우에는 목젓소리가 없음이 특이하다.

	양순	치조	경구개	연구개	목젓
무성 무기	p	t	c	k	q
무성 유기	ph	th	ch	kh	qh
유성	b	d	j	g	
비음	m	n		ŋ	
무성 마찰	f	s		h	
유성 마찰	v		y	g'	
설측음		l			

#### (1) 라후어와 한국어의 닿소리 음소 목록 비교

라후어와 한국어의 닿소리 음소는 그 수와 종류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이를 위하여 라후말의 닿소리 음소 목록을 제시하여 한국말의 음소와 대비시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한국말의 음소는 대응하는 라후말의 기호 뒤에 사선을 긋고 그 다음에 대비하였다. 따라서 사선이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에 해당 음소가 없음을 뜻한다.

라후말과 한국말의 닿소리 음소 대조표

p /ㅍ	t /ㅌ	c /ㅊ	k /ㅋ	k'	
ph /ㅍ	th /ㅌ	ch /ㅊ	kh /ㅋ	kh'	
b /ㅂ	d /ㅌ	j /ㅈ	g /ㄱ		
m /ㅁ	n /ㄴ		ŋ /ㅇ		
f	s /ㅅ				h /ㅎ
v		y(반모음 j)		g'	
	l /ㄹ				

위의 라후말과 한국말의 닿소리 음소 대조표에서 드러나듯이, 한국말은 음소가 19개인데 비해서 라후말은 이보다 5개가 많은 24개이다. 그리고 라후말은 우리말에 없는 목젓소리 /k', kh', g'/ 와 순치음 /f, v/ 의 다섯개 음소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 이들 다섯개의 음소는 한국말에 전혀 없는 소리들이다. 또한 설측음 /l/이 항상 설측음으로만 나는 것도 우리말과는 다른 특색이다.

3. 라후어의 모음 음소 목록

라후어의 모음 음소 목록은 다음의 9개 음소로 구성된다:

i	ɯ	u
e	ʌ	o
ɛ	a	ɔ

이 9개의 모음을 조음음성학적인 체계로 재배치하면 다음과 같다:

	전 설	후 설
	평순	평순 원순
폐모음	i	ɯ u
반폐모음	e	ʌ o
반개모음	ɛ	ɔ
개모음	a	

#### (1) 라후말과 한국말의 홀소리 음소 목록

라후말과 한국말의 홀소리 음소의 수와 그 종류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 언어의 모음 음소 목록을 대비시키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도 한국말의 홀소리 음소는 대응하는 라후말의 홀소리 뒤에 괄호로 묶어 제시하였다.

#### 라후말과 한국말의 홀소리 음소 대조표

i(이)	ɯ(으)	u(우)
e(에)	ʌ(어)	o(오)
ɛ(애)	a(아)	ɔ

위의 표에서 라후말은 모두 9개의 모음 음소 체계를 가지고 한국말은 8개의 음소 체계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말은 후설 원순 개모음이 없는 것이 다를 뿐 나머지는 라후말과 체계가 일치한다.

#### 4. 라후어의 성조

라후어에는 음절마다 없이는 성조가 7개 있다. 라후어의 7성조 체계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성조의 표시 방법은 필자가 독자적으로 고안한 체계이다

1) 높내림 = /;a/ -> /;ca/ “떡다”



- 2) 가온 수평 = /a/ -> /ca/ “찾다”(무표시)  
 3) 낮내림 = /,a/ -> /,ca shi\_/ “쌀 알”  
 4) 낮수평 = /\_a/ -> /\_ca/ “먹이다”  
 5) 높오름 = /?a/ -> /?ca/ “잇다/참여하다”  
 6) 높내리 막힘 = /:a/ -> /:ca/ “작은 조각”  
 7) 낮내리 막힘 = /.a/ -> /.ca/ “밀다”

위에서 ca 라는 하나의 음절이 7개의 성조와 차례로 결합함에 따라서 일곱 가지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낱말을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높내림”은 목소리가 높은 데서 낮게 떨어지는 성조이고, “가온 수평”은 목소리가 보통의 중간 높이로 평평하게 지속하는 성조이다. 또 “낮내림”은 중간 정도의 목소리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떨어지는 성조이고 “낮수평”은 낮고 수평으로 지속하는 성조이며, “높오름”은 중간 목소리 높이에서 더 높은 목소리로 올라가는 성조이다. “높내리 막힘”의 성조는 높은데서 낮게 떨어지되 성문과열음이 뒤따라서 목이 막히듯이 목소리가 갑자기 중단되는 성조이고, 끝으로 “낮내리 막힘”은 끝부분에서 목소리가 막히듯 갑자기 중단되는 현상은 위와 같으나 시작하는 목소리 높이가 중간 정도인 점이 다르다.

성조의 표시는 흔히 모음의 위에 몇 가지 부호를 덧붙여서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필자는 두 가지 이유로 새로운 성조 표시법을 도입하였다. 첫째로 성조표시를 모음 위에 하면 이를 보고 발음할 때에 성조를 올바르게 확인하고 발음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정확한 성조를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모음 앞에 성조 표시를 하여 여유를 가지고 성조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로 성조 기호는 생소한 기호보다는 눈에 익은 표시가 유리하기 때문에 구두점을 도입하였다. 특히, /?/ 표시는 의문문의 끝이 오름을 나타내고 /:/ 나 /./ 등은 목소리가 낮아짐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조 형태를 기억해 두는데도 유리할 것이다.

#### IV. 자음의 음성·음운론적 기술

초성에서 나는 자음들의 음성학 및 음운론적 특성을 유형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1. 순음 /p, ph, b, m, f, v/

순음 계열에는 양순 파열음 /p, ph, b/와 양순비음 /m/, 그리고 순치음 /f, v/ 가 있다.

##### (1) 양순파열음 /p, ph, b/.

양순파열음 /p, ph, b/는 음성학적으로 초성의 위치에서 무성 무기음 [p], 무성 유기음 [p'] 그리고 유성음 [b]로 각각 실현된다. 그리고 이들은 다음과 같이 음운론적으로 삼중의 대립을 보인다.

보기) /pa(ve)/ [pa(ve)] “바꾸다”

/pha/ [pha] “형겻/천”

/ba(ve)/ [ba(ve)] “빡다”

그러므로 라후말은 우리말과 마찬가지로 양순파열음이 삼중 대립을 보이는 언어이다. 이것은 한국어의 /ㅂ, ㅃ, ㅍ/가 모두 양순 파열음이라는 동일한 조음위치에서 나는 터짐소리들이지만, 서로간에 약간의 음성적 차이로 인하여 별개의 음소를 이루는 것과 같다. 즉 한국어의 /ㅂ/는 예사소리, /ㅃ/는 거센 소리, /ㅍ/는 된소리로 나므로 /밭, 팔, 빨/과 같이 낱말의 의미를 분화하는 삼중의 음운대립을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라후말의 /p, ph/는 한국어에서와 같이 각각 무기 무성과 유

기 무성음이다. 다만 라후말의 /b/는 한국어와 달리 어두에서도 유성음으로 실현되는 것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또한 라후말은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양순파열음뿐 아니라 치조파열음 /d, t, th/와 연구개 파열음 /g, k, kh/도 삼중 대립을 보인다. 그리고 한국어에서 파열음의 삼중대립외에 파찰음 /s, ʃ, ʒ/의 삼중대립이 있듯이, 라후말에도 이와 유사한 파찰음 /j, ch, c/의 삼중 대립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와 대단히 흡사한 현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파열음 /p, ph, b/이 모음 /u/ 앞에 올 때에는 이들이 파찰화하여 [pf, pfh, bv]와 같이 파찰음으로 실현된다. 동시에 이들 /p, ph, b/ 뒤에 오는 모음 /u/는 원순을 상실하여 [ɯ]로 실현된다.

- 보기) /;pu/ -> [;pfɯ] “등에 지다”  
 /;phu/ -> [;pfhɯ] “뒤로 돌다”  
 /;bu/ -> [;bvɯ] “(글을) 쓰다”

## (2) 양순 비음 /m/

/m/은 모음 /u/를 제외한 다른 모음 앞에서는 양순 비음 [m]으로 실현된다. 그러나 /m/이 모음 /u/에 앞설 때에는 특이한 음운 과정을 보인다. 즉, 모음 /u/가 원순을 상실하여 [ɯ]로 바뀐다. 뿐만 아니라 평순화한 [ɯ]는 동시에 비음화하여 [m̥]로 실현된다.

- 보기) /;ma (ve)/ “많다”  
 /;mi (ve)/ “(손을) 뺨치다”  
 /;mu/ -> [;m̥ɯ] “버섯”  
 /?i\_mu / -> [?im̥ɯ] “말”

## (3) 순치음 /f, v/

/f, v/는 순치 마찰음으로써 무성/유성의 대립을 보인다.

보기) /fa/ [fa] “표면” ; /va/ [va] “덧”

/:fa/ [:fa] “구름낀” ; /:va/ [:va] “대나무”

/f, v/는 모음 /o/ 앞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v/는 모음 /u/ 앞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v/가 후설 평순모음 /u, ʌ/ 앞에서 날 때는 원순화되어 [vw] 로 실현된다.

보기) /vu/ -> [vwu] “뱀”

/.vʌ;qa/ -> [vwʌ;qa] “옷”

## 2. 치조음 /t, th, d, s, n, l/

치조음에는 파열음 /d, t, th/와 마찰음 /s/ 및 비음 /n/과 설측음 /l/이 있다.

## (1) 치조파열음 /t, th, d/

치조파열음 /t, th, d/는 모두 치조에서 발음되며 무성무기음 [t], 무성유기음 [th], 유기음 [d]로 실현된다. 치조파열음 역시 다음과 같이 삼중대립을 보인다.

보기) /:ta ve/ “오르다”

/:tha ve/ “날카롭다”

/.da ve/ “좋다”

## (2) 마찰음 /s/

/s/ 는 치조 마찰음이나, 비교적 넓은 간극에서 나오는 연한 소리이므로 [sh] 로 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나 프랑스어의 /s/ 와는 다르며 한국어의 /ㅅ / 소리에 가깝다.

보기) /ʔsa (ve)/ “과일을 따다”

/se (ve) / “엮지르다”

## (3) 치조 비음 /n/

/n/은 보통 치조 비음으로 난다.

보기) /\_na pɔ/ [\_na pɔ] “귀”

/;ne ,hai/ [;ne, hai] “귀신”

그러나 /n/이 모음 /i/ 앞에서는 경구개음화하여 [ɲ] 로 난다.

보기) /ni/ [ɲi]

/ni ma/ [ɲi ma] “심장”

## (4) 설측음 /l/

/l/은 설측음 [l]로 실현된다. /l/이 모음 /i/ 앞에서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난다. 특히 라후의 고유어에서 특히 그러하다.

보기) /;la/ [;la] “호랑이”

/;la .ga/ [;la ga] “표범”

/lo ve/ [lo ve] “구르다”

/.li/ [.li] “책, 글자”

### 3. 경구개음 /c, ch, j, y/

경구개음에는 파찰음 /c, ch, j/와 마찰음 및 반모음 /y/가 있다.

#### (1) 경구개 파찰음 /c, ch, j/

파찰음 /c, ch, j/는 구개음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실제 음가는 상당히 전진한 조음 위치에서 난다. 즉 치조 뒤에서 나는 파찰음이므로 이들의 음가는 [ts, tsh, dz] 로 표기할 수 있다. /c/는 무성 무기음이고 /ch/는 무성 유기음이며 /j/는 유성음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국어의 /ㅈ, ㅊ, ㅉ/ 와 흡사한 소리이다. 다만 초성의 /j/는 한국어의 경우와는 달리 유성음으로 나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낱말에서 음운론적인 삼중 대립을 보인다.

보기) /ca (ve)/ “찾다” ; /cha (ve)/ “빛나다/밝다” ; /ja (ve)/ “좋다”  
 /,ce (ve)/ “노예” ; /,che (ve)/ “버리다” ; /,je (ve)/ “빚”

#### (2) 경구개 마찰 및 반모음 /y/

/y/는 경구개에서 나는 소리이며 환경에 따라서 두 가지 변이음으로 실현된다. 모음 /i/나 /e/에 선행하는 /y/는 경구개 유성 마찰음 [j]로 난다. 그러나 그 밖의 모음에 선행할 때는 마찰이 없는 반모음으로 난다. 국제음성기호로는 이 역시 [j]로 표기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이를 앞서 말한 마찰음 [j]와 구별하기 위하여 [y]로 나타낸다.

보기) /,ya/ [.ya] “아이”  
 /,yo/ [.yo] “네”  
 /yu (ve)/ [yu (ve)] “매달리다”



중대립을 보인다. /k/는 무성 무기음이고, /kh/는 무성 유기음이며, /g/는 유성음으로 실현된다.

보기) /:ka (ve)/ [ka ve] “춤다”

/:kha ve/ [kha ve] “떨감을 모으다”

/:ga ve/ [ga ve] “유혹하다”

연구개 파열음은 모음 /i, e/ 앞에서는 아주 드물게 나타날 뿐이다. 따라서 연구개 파열음 /k, kh, g/의 후속 모음과의 결합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u	u
연구개음	+		v	o
			ε	a    ɔ

(2) 연구개 비음 /ŋ/

연구개 비음 /ŋ/ 역시 다른 자음 음소와 마찬가지로 초성에서만 나나 후속 모음과의 결합관계가 상당히 제한된다. 연구개 비음과 결합이 가능한 모음은 다음과 같이 혀위치가 낮은 모음들 뿐이다.

ŋ	+	Δ
		ε    a    ɔ

보기) /,ŋa/ “물고기”

/ŋε ve/ “짧다”

/ŋΔ ve/ “쏟아지다”



/ŋɔ ve/ “집착하다”

### 5. 목젓 소리 /q, qh, g’/

라후어는 연구개음 이외에도 이보다 더 뒤에서 나는 목젓 소리가 있는 것이 특이하다. 라후어의 목젓소리에는 목젓 파열음과 목젓 마찰음이 있다.

#### (1) 목젓 파열음 /q, qh/

목젓 파열음에는 무성 무기 파열음 /q/과 무성 유기 파열음 /qh/만이 대립을 보이며 연구개 파열음 [g]에 해당하는 목젓 유성 파열음은 없다.

보기) /;kɔ ve/ “밭을 갈다”

/;khɔ ve/ “흙치다”

라후어에서 연구개 파열음과 목젓 파열음이 대립을 보이는 낱말 짝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보기) /:kha/ [:kha] “석궁”

/:qha/ [:qha] “마을”

/\_ɔ khɔ/ [\_ɔ khɔ] “뿔”

/\_ɔ qhɔ/ [\_ɔ qhɔ] “안(에w)”

라후어의 목젓 파열음 /q, qh/는 모음 /i, e/와의 연결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u, ʌ/ 앞에서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젓 소리 /q, qh/의 후속모음과의 결합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u
목젓 소리	+		o
		ε   a   ɔ	

## (2) 목젓 마찰음 /g/

/g/은 목젓 유성 마찰음이며 이에 해당하는 무성의 짝은 없다.

보기) /,g'a/ “힘”

/;ga ve / “획득하다”

/,g'ɔ ve/ “당기다”

/,g'ɯ ve/ “뛰다”

## 6. 성문 마찰음 /h/

/h/는 무성 성문 마찰음으로 음성환경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변이음으로 실현된다.

i) 모음 /i/ 앞에서는 무성 경구개 마찰음 [ç]로 난다.

즉 /h/ -> [ç] / \_\_\_ i

보기) /:hi ve/ [çi ve] “흔들다”,

/?hi ,ma/ [çi ,ma] “팔”

ii) 모음 /ɯ/ 앞에서는 무성 연구개 마찰음 [x]로 난다.

즉 /h/ -> [x] / \_\_\_ ɯ

보기) /?hɯ ve/ [xɯ ve] “동의하다”,

/?hɯ ?hɯ/ [xɯ ?hɯ] “웃음소리”

iii) /i/와 /u/ 이외의 모음 앞에서는 무성 성문 마찰음 [h]로 난다.

보기) /ʔha puu ʔsi/ [ʔha puu ʔsi] “돌”,

/ʔho ,na/ [ʔho ,na] “두목”

/:hΛ ve/ [:hΛ ve] “결혼하다”

## 7. 성문 파열음

라후어의 음절중에는 초성의 자음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음절은 모두 자음이 없이 모음으로 시작하게 된다. 가령, /i/ “작은”, /a ,na/ “질병”, /ɔ \_sa \_pa/ “조카”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그러나 감정적인 말씨에서는 모음 앞에 성문파열음이 나타나는 일이 있다. 이것은 주로 문장이나 절의 첫음절에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성문 파열음은 수의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음운론적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

문장이나 절의 초두 위치 이외에서는 성문파열음이 모음 앞에 오는 일이 없다. 따라서 모음으로 끝나는 음절 다음에 동일한 모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이 연달아 올 때에는 같은 모음이 두번 겹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두 모음 사이에 성문파열음이 삽입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두 모음이 하나의 긴 모음과 같이 발음된다.

보기) /,ŋa .a .pe :la/ -> [,ŋa. a .pe :laa]

## V. 모음의 음성 · 음운론적 기술

라후어에서 음절의 핵이 되는 모음은 대부분 단순모음이다. 그러나 때로

는 이중모음이 음절의 핵이 되는 일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라후어의 모음을 단순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 1. 단순 모음

라후어의 단순 모음은 모두 9개이다. 이 9개의 모음은 음운론적으로 볼 때에 혀의 높이에 의한 고설, 중설, 저설의 삼중대립과 혀의 전후에 의한 전설, 중설, 후설의 삼중대립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도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물론 음성학적으로 볼 때에는 /ɯ/와 /ɨ/를 후설모음으로 분류해야 하며 /a/ 모음은 완전히 열린 모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ɯ	u
e	ʌ	o
ɛ	a	ɔ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라후말은 후설 폐모음과 후설 중간모음에서 평순과 원순의 대립을 보인다. 즉 /u/와 /ɯ/ ; /i/와 /ɨ/ 이는 한국어에서 /우/와 /으/ 및 /오/와 /어/가 입술의 원순-평순의 차이로 대립하는 현상과 동일하다. 반면에 라후어는 후설 반개 원순 모음 /ɔ/가 있고 이는 반폐 모음 /o/와 대립을 보인다. 이는 한국어에는 없는 현상이다.

#### (1) 전설 모음 /i/

모음 /i/ 는 전설 평순 폐모음이며 그 음가는 기본모음 1번에 가까운 긴장된 모음이다. 한국어의 긴 /이:/에 유사한 음가를 지닌다.

보기) /ʔi ve/ “재우다”

/ʔi :ka/ “물”

/ʔmi chɔ/ “가방”

/te ʔchi ,ma \_si/ “무식하다”

(2) 전설 모음 /e/

모음 /e/ 는 전설 평순 반폐모음이며 그 음가는 기본모음 2번 [e]에 가까운 모음이다. 한국어의 긴 /에:/와 유사한 음가를 지닌다.

보기) /,se/ “이(몸에 기생하는)”

/,te/ “하나”

/;new/ “정신/영혼”

/\_he ve/ “속이다/거짓말하다”

(3) 전설 모음 /ɛ/

모음 /ɛ/는 전설 평순 반개모음이며 그 음가는 기본모음 3번 [ɛ]에 가까운 모음이다. 한국어의 긴 모음 /애:/ 보다 약간 닫힌 음가를 낸다.

보기) /;mɛ/ “모든”

/.lɛ/ “동물”

/te ve/ “놓다”

/,pɛ/ “뗏목”

(4) 후설 평순 모음 /u/

모음 /u/는 전설 평순 고모음이며, 그 음가는 제 2차 기본모음 8번 [u]에 가까운 모음이다. 한국어의 긴 /으:/와 유사한 음가를 지닌다.

- 보기) /\_u ve/ “크다”  
 /fu ve/ “구별하다”  
 /:du \_e/ “소란하다”  
 /;vu ,ubi/ “멀리 있는”

(5) 후설 평순 모음 /ʌ/

모음 /ʌ/ 는 전설 평순 반개모음이며, 그 음가는 제 2차 기본모음 6번 [ʌ] 보다 약간 높은 모음, 즉 기본모음 6번과 7번의 사이에 위치한 모음이다. 한국어의 짧은 /어/ 보다 높은 음가로 실현된다.

- 보기) /·ʌ ve/ “트림하다”  
 /ʔhʌ ve/ “소리치다”  
 /;mʌ ve/ “순하다”  
 /·phʌ ve/ “열다”

/ʌ/는 라후어의 모음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낮은 모음이며 이 모음이 나타나는 낱말은 주로 외래어이다.

(6) 후설 원순 모음 /u/

모음 /u/는 후설 원순 폐모음이며, 그 음가는 제 1차 기본모음 8번보다 약간 낮은 모음이다. 보통의 원순을 지닌 채 발음된다. 한국어의 긴 /우:/와 유사한 음가를 지닌다.

- 보기) /ʔu/ “윗부분”  
 /;ku ve/ “짐작하다”  
 /ju lu / “중”

## /chu ve/ “뚱뚱하다”

자음 /p, ph, b, m/가 앞에 오면 모음 /u/는 원순을 상실하고 평순으로 실현된다(IV장. 1절 (1) 참조)

## (7) 후설 원순 모음 /ɔ/

모음 /ɔ/는 후설 평순 반폐음이며, 그 음가는 제 1차 기본모음 7번 [ɔ]에 가까운 모음이다. 상당히 강한 원순을 띄고 발음된다. 한국어의 긴 /오:/와 유사한 음가를 지닌다.

보기) /;ɔ/ “그(것/곳)”

/,no/ “너”

/,co/ “교량”

/to/ “몸/신체”

## (8) 후설 원순 모음 /ɔ̃/

모음 /ɔ̃/는 후설 원순 반개모음이며, 그 음가는 제 1차 기본모음 6번 /ɔ/에 가까운 모음이다. 원순은 약한 편이다. 평안도 말에 쓰이는 열린 /오/와 유사하다.

보기) /;ɔ̃/ “넛”

/;co ve/ “옳다”

/kɔ̃/ “병”

/no po/ “푸른”

## (9) 중설 평순 모음 /a/

모음 /a/는 중설 평순 개모음이며, 그 음가는 제 1차 기본모음 4번 [a]와 5번 [ɑ]의 중간에 위치한 소리값으로 실현된다. 한국어의 /아/에 가까운 모음이다.

보기) /ʔa ;ce/ “도끼”  
 /ba ve/ “농담하다”  
 /:ka ,ca ʔsi/ “사자”  
 /ʔta ma/ “고모”

/a/는 라후어의 모음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으며 가장 널리 쓰이는 모음이다.

## 2. 이중모음

위에서 기술한 단순모음 이외에 라후말에는 이중모음이 있다. 라후말의 이중모음은 본태적인 이중모음과 합성적 이중모음으로 나뉜다. 본태적인 이중모음은 한 형태소 안에서 나는 이중모음을 말하고 합성적 이중모음은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두 모음의 결합으로 비롯되는 이중모음이다.

### (1) 본태적 이중모음

본태적 이중모음은 대부분이 산어나 타이어에서 차용으로 들어온 외래어에서 나타나는 /ay/ 이중모음이다. /ay/ 이중모음은 단순모음 /a/에서 시작하여 모음 /i/와 /e/ 사이의 위치에 있는 반모음으로 이동하는 이중모음이다.

보기) /ʔlay/ “여러 개의/몇 개의”,  
 /,hay/ “사악한”  
 /;vay/ “빠르다”



/ʔlay ʔlay/ “소용없는, 빈”

/ay/ 이중모음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으면서도 일상 널리 쓰이는 낱말인 /qay/ “가다”에서도 나타난다.

/ay/ 이중모음 이외에도 /ɔ/와 /ew/가 외래어에서 드물게나마 나타난다. 이때의 /w/ 요소는 단순모음 /o/보다 다소 열린 모음의 음가를 지니는 반모음적 요소이다.

보기) /\_qɔ/ “말하다, 해설하다”

/.ma \_pɔ/ “코코넛”

/.ma ,tew/ “카드놀이, 도박”

## (2) 합성적 이중모음

합성적 이중모음은 뒤에 오는 형태소의 첫모음이 앞 음절의 모음과 결합하여 구성하는 이중모음을 말한다. 합성적 이중모음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뉜다.

### 1) 동사의 후치사 /o/와의 합성

동사의 후치사 /o/(상태의 변화 또는 행동의 완성을 뜻함)가 동일한 성조를 갖는 동사에 이어질 때에는 두 모음이 결합하여 일종의 이중모음을 이룬다.

보기) /,ga ,o/ [,ga w] “이미 도착하였다.”

/,mɔ ,o/ [,mɔ w] “어제 본다.”

### 2) 동사의 후치사 /e/와의 합성

동사의 후치사 /e/와 선행하는 동사의 끝모음이 결합하여 이중모음을 이룬다. 후치사 /e/는 “동작의 이행”을 뜻한다.

보기) /na e/ “(병이)났다”

/pa e/ “넘어지다”

이같은 이중모음의 끝소리 /e/는 이미 앞에서 말한 /ay/ 이중모음의 경우와 같이 /i/와 /e/의 중간 소리값으로 난다.

### 3) 후치사 /ɛ/와의 합성

“다만, 유일의” 뜻을 지닌 후치사 /ɛ/가 선행하는 모음과 어울려 이중모음을 이룬다. 이같은 이중모음의 뒤 요소도 /ay/의 경우와 같은 소리값을 지닌다.

보기) /:tɛ ,pv/ ”한 입“

/;tɛ ,pv ;e/ “한 입만”

### 4) /w/ 이중모음

앞에서 제시한 합성적 이중모음은 모두 하강 이중모음(falling diphthongs)이었다. 라후어에는 이밖에도 하강 이중모음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w/ 반모음으로 시작되는 이중모음들이다. /w/ 요소의 음가는 후속하는 모음에 따라 결정되는데, 후속모음이 열린 모음이면 /w/도 개구도가 넓어지고 후속모음이 닫힌 모음이면 개구도가 좁아진다. /w/ 이중모음은 대부분 버마어나, 산어 및 타이에서 차용된 낱말에서 나타난다.

보기) /:pwɛ/ “축제” (산어)

/a,khwa/ “허락” (버마어)

/ʔhwe\_si/ “해삼”(타이어)

또한 라후어에는 후설모음 /u, o, ɔ/ 로 끝나는 어형과 /w/ + 전설모음 /i, e, ɛ/의 어형이 공존하는 일이 있다. 이 때 /w/ 다음의 전설 모음은 해당 후설모음과 동일한 혀의 높이를 유지한다.

보기) /;Na ku/ - /;Na kwi/ “말린 생선”

/,yɛ ʔmi \_tɔ/ - /,yɛ ʔmi \_twɛ/ “꿈”

/co/ - /cwe/ “시기, 기간”

### 3. 비모음화

라후어에는 비모음화 현상이 있다. 그러나 비모음화는 주로 차용어에서만 나타나므로 라후어 고유의 중요 현상으로 볼 수는 없다. 비모음화는 주로 산어나 버마어 또는 타이어 등과 같은 말에서 들어온 차용어에서 나타나는데 원어에서는 /m, n, ŋ/이나 비모음으로 존재하였다. 또한 비모음화 현상은 수의적이어서 조심스럽고 정확한 말씨에서만 발음되는 경향이 있다. 비음화된 모음은 뒤에 /n/을 더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보기) /ʔhin/ [ʔhĩ] “천”

/a,khwan/ [a,khwã] “허가”

/\_khan/ [\_khã] “참다”

/,o;yan/ [,o;yã] “시간”

차용어를 비음화하지 않을 경우에 라후어의 토박이 낱말과 동음이의어가 되어 구별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차용어의 비음화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령 라후의 토박이 낱말 /ɔ ;ya/ “아이”와 차용어 /ɔ ;ya(n)/ “시간”은 차용어의 비모음화에 의해서만 구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비모음화가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다.

#### 4. 성조

라후의 음절은 모두 하나의 성조를 지닌다.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라후어에는 7개의 성조가 있으며 이중 2개의 성조는 성문과열음으로 끝난다. 다음에 라후어 성조의 음성·음운론적인 특징을 기술한다.

##### (1) 낮 수평 성조의 변화

낮수평 성조는 낮은 목소리로 높낮이의 변화가 없이 지속되는 성조이다. 그러나 해당 음절이 고립된 위치에서 홀로 나거나 문장의 끝에 올 때는 끝부분이 다소 높아지며 결과적으로 음절 전체가 길게 발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가령, /;ma \_si/ “모른다”에서의 /\_si/ 는 낮수평 성조를 지니지만 실제로는 일종의 낮은 오름 성조로 발음되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낮수평 성조를 형태가 유사하여 구별이 쉽지 않은 낮내림 성조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 (2) 성조의 빈도수

라후어의 7 성조는 사용 빈도수에서 차이가 난다. 가장 빈도수가 높은 성조는 “가온 수평” 성조이며 음절의 초성 자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나타난다. 즉 모든 초성 다음에 나타난다. 다음으로 빈도수가 높은 것은 “높내림” 성조이다. 이 성조는 /f, s, h/ 를 제외한 모든 초성 자음 다음에 나타난다.

세번째로 빈도수가 높은 성조는 “낮내림성조” 인데 이는 유가음과 무성마찰음으로 시작되는 음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가장 사용 빈도수가 낮

은 성조는 “낮수평” 성조이며 이는 무성무기 장애음과 비음 및 무성 마찰음 다음에만 나타난다.

### (3) 성조의 결합

라후어의 성조는 서로 극히 자유롭게 결합하여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성조 결합에 관한 음운론적인 제한이 없다. 가령 2음절의 성조 결합은 모두 49가지가 되는데 실제로 49가지의 결합 형태가 모두 나타난다. 몇 가지 대표적인 2음절 성조의 결합형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ha pa “달”,	a ?kε “더 많이”
cho ;mo “어른”,	qha ,pv “다 끝난”
ha _tε “혀”,	cho :na “산적”
chi .bv “지금”,	?a ni “어제”
?huu ?huu “웃음소리”,	?hi ;g'a “여덟사람”
?a ,ta “막대기”,	?ha _qo “동굴”
?khuu :nu “구두”,	?ca .da “관련된다”
;che sa “건강한”,	;jo ;mo “주인”
_mi _guu “땅”,	_qha ;tha “항상”
:ha :ha “빨리”,	.ya ?puu “오늘밤”

### (4) 성조의 의미적 연계 기능

라후어에는 어형이 동일하고 의미적 유사성이 있는 낱말의 짝이 많이 발견된다. 그런데 이러한 낱말 짝은 단지 성조에서 차이가 날 뿐이다.

보기) ;mu “하늘”	-	mu “높다/키가 크다”
phε “뭉다”	-	;phε “풀다”

:he “사실이다” - \_he “거짓말하다”

phu “은/돈” - ;phu “값”

그러나 위에 말한 성조의 의미적 연계 현상은 이렇다할 규칙성을 보이지 않는다.

#### (5) 형태소 경계에서의 성조 변화

라후어에서 한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와 결합할 때에 성조가 변하는 현상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이며 불규칙한 것이 있는가 하면 상당히 규칙적인 것도 있다.

##### 1) 불규칙한 성조 변화

불규칙한 성조 변화는 말하는 이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이렇다할 규칙을 세울 수 없는 성조의 변화를 말한다.

khui “밭” - ?khu :nu “구두”

:se “셋” - \_se ni “사흘” - se ;g'a “세 사람”

##### 2) 규칙적인 성조 변화(형용사 -> 부사)

홀로 쓰일 때에 가온 수평의 성조를 지니는 다음의 색채어들이 부사 형성 후치사 /,ε/와 결합할 때에는 오름 성조로 실현된다.

보기) no “파란/초록의” -> ?no ,ε “파랗게/초록으로”

ni “빨간” -> ?ni ,ε “빨갱게”

si “노란” -> ?si ,ε “노랗게”

pho “하얀” -> ?pho ,ε “하얗게”

## 3) 규칙적인 성조 변화(단순동사 -&gt; 사역동사)

성조의 차이로 단순 동사와 사역동사 또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보이는 낱말들이 있다. 때로는 성조의 차이와 함께 초성자음의 유성화나 유성자음의 무성화도 수반된다.

보기)	,dɔ	“마시다”	->	tɔ	“마시게 주다”
	,mɔ	“보다”	->	mɔ	“보이다”
	,na	“아프다”	->	na	“낮게하다”
	;ca	“먹다”	->	_ca	“먹이다”
	;nɔ	“깨다”	->	nɔ	“깨우다”
	.va	“숨다”	->	?fa	“숨기다”

## 참고 문헌

1. David Bradley, Thai Hill Tribes Phrasebooks, Lonely Planet Publications, Inc. 1991.
2. Andre and Louis Boucaud, Peoples of the Golden Triangle, 1986.
3. 김 병호, 치앙마이, 서울, 1992.
4. H. B. Lee(이 현 복), "A Contrastive Study of Lahu and Korean." Paper presented at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outheast Asian Linguistics, Bangkok and Chiang Mai, Thailand, 1994.
5. Paul Louis, Lahu - English - Thai Dictionary, Thailand Lahu Baptist Convention, Chiang Mai.
6. James Matisoff, The Grammar of Lahu, University of California Publications: Linguistics Volume 75. 1982.